김학범 감독 "도쿄올림픽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축구대표팀,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우승

도쿄올림픽 본선 출전권도 획득 9회 연속 출전 금자탑 추가

"이번 대회를 정리하자면 '믿음의 성과' 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선수들이 코칭스태프를 믿어줬고, 코칭스태프는 선수들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그 힘이 우승까지 이어진 것 같다."

김학범 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는 최근 막을 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U-23 대표팀은 지난 26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회 결승전에서 연장후반 8분 터진 천금 같은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 챔피언에 등극했다. 이 우승과 함께 대표팀은 도쿄올림픽 본선 출전권도 획득해 9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라는 금자탑도 추가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최상의 결과였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잘 따라주었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K리그 감독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많은 배려를 해주셨기에 조기 소집 등이 가능했다. 감사하다"면서 "연령별 대회는 우리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한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 열린다. 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다음은 김학범 감독과의 일문일답.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역대 첫 우승을 이끈 김학범 감독이 30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승까지 최대 고비는 언제였나.

▶매 경기가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임했지만, 아무래도 4강 호주전이 힘들었다. 그 경기에서 패한다면 3/4위전으로 밀려나 피 말리는 경기를 해야 했다. 부담이 많이 갔다.

-이번 우승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감독으로서 타이틀을 거머쥐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행복이다. 우승은 언제나 기쁜 것 아니겠는가. 선수들에게는 큰 자신감이 심어졌을 것이다. 연령의 특성상 A대표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밑자리라 생각하는데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매 경기 로테이션이 화제였다.

▶지난해에 (대회가 열리는)비슷한 날짜에 태국에서 3주간 전지훈련을 했다. 그때 '날씨가 문제겠구나' 생각하면서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최대한 선수들 모두를 가동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로테이션이라는 게 그냥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하고 상대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멤버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선수들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었다.

-돌아볼 때 아쉬운 점은.

▶모든 경기는 다 아쉬움이 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쉽지 않다. 이번 대회에서 느낀 것은, 보다 빨라져야한다는 것이다. 선수들의 움직임부터 패스 타이밍 등 속도를 더 높여야한다.

-도쿄 올림픽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회마다, 경기마다 준비하는 게 다르다. 태국 챔피언십과 도쿄올림픽은 다르게 준비해야한다. 엔트리도 18명으로 줄어든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는 이제부터 계속 생각할 것이다. 조 추첨 후 만날 상대가 결정되면 그것에 맞게 선수를 선발해야한다. 정해진 것은 없다.

-와일드카드 구상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것이다.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 팀에 필요한 선수를 쓸 것이다. 조금 기다려달라.

-메달을 목표로 삼았다. 가능성 있는가.

▶감독은 어떤 경기를 나가도 피해서는 안 된다. 선수들에게도 그렇게 주문한다. 난 선수들을 믿었고, 선수들은 코칭스태프를 믿었기에 이번 대회 우승이 가능했다. 올림픽이라고 다르지 않다. 연령별 대회는 우리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대회다. 또 일본에서 열린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홈 이점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일단 일본 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호랑이 선생님에서 따뜻한 아버지로 바뀌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웃음). 훈련장에서는 엄하게 한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부상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운동장 안에서는 강하지만 훈련이 끝나면 다르다. 선수들은 엉덩이를 두드려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이 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프로에서도 그랬다. 난 그리 강한 사람이 아니다.

-이번 대회의 아픈 손가락을 꼽는다면.

▶2명만 경기 출전을 못했다. 골키퍼 2명(안준수, 안찬기)인데, 특수 포지션이라 섣불리 바꾸기가 어려웠다. 미안하면서 고맙다. 내색 하지 않고 잘 따라줬다.

-이강인과 백승호는 본선에서 합류하나.

▶두 선수의 차출을 위해 이번 대회 전부터 접촉을 많이 했다. 구단과의 소통은 잘 됐지만 마지막에 아쉽게 무산됐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만 본선에 합류하려면 일단 경쟁에서 살아남아야한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라고 무조건 팀에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다. 기량적인 면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앞서야 팀에 들어올 수 있다. 자신의 참가 의지도 필요하다. 다 갖춰져야 한다. 경쟁은 똑같다.

-정우영이 생각보다 부진했다.

▶내가 뮌헨에서 처음 봤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폼이 많이 떨어졌다. 그때는 우리 선수들에게 없는 장점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컸던 것 같다. 신경 쓰지 말라고는 했으나 어린 선수라서 그런지 잘 안됐다. 이번 대회에 가지고 있었던 부담을 해소한다면 가벼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떨쳐낸다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본선까지 계획은.

▶3월과 6월 평가전을 계획하고 있다. 협회에서 준비 추진 중이다.

-와일드카드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 때 손흥민, 황의조, 조현우를 와일드카드로 뽑았다. 그때 그 선수들이 나를 찾아와서 '감독님,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더라. 딱 한 마디 해줬다. 너희가 공 나르고 물 날라라. 그런 행동을 하면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선배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 팀에 좋은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번에도 똑같다. 어차피 팀에 필요한 선수를 소집할 것인데,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일단 헌신이다.

뉴스1

美 매체 "류현진, 반론 없는 토론토 최고 선발"…5선발 경쟁 치열

류현진 필두 체이스 앤더슨 · 태너 로어크 · 맷 슈메이커

류현진의 새로운 둥지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의 2020시즌 입지는 탄탄해 보인다. 류현진을 필두로 선발진이 구축되는 가운데 5선발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은 30일(한국시간) 토론토의 2020년 개막전 로스터에 대해 전망했다.

선발투수로는 류현진(33)을 필두로 체이스 앤더슨, 태너 로어크, 맷 슈메이커 등이 분류됐다. 트렌트 손튼과 야마구치는 5번째 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 애슬레틱은 "지난 시즌 선발진에 많은 변화를 시도했던 토론토는 오프시즌 동안 선발진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토론토는 겨울 동안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류현진과 로어크를, 트레이드를 통해 앤더슨을 영입하며 선발진을 보강했다.

매체는 "토론토의 최고의 선발투수가 류현진이라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스프링캠프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지만 로어크, 슈메이커, 앤더슨 등도 선발 자리를 확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류현진은 2019시즌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며 메이저리그 정상급 선발 자원으로 올라섰다. 류현진은 2020시즌 토론토의 에이스로 활약할 전망이다.

단 5번째 선발자리를 누가 맡을지는 불투명하다. 우완투수 손튼은 지난 시즌 32경기(29경기 선발)에 출전해 6승9패 평균자책점 4.84의 성적을 남겼고 일본 프로야구 출신의 야마구치는 올해가 빅리그 데뷔 시즌이다.

또한 2018년 토론토에서 17경기 선발로 등판해 4승6패 평균자책점 3.87의 성적을 남겼던 라이언 보루키도 5선발 경쟁에 합류할 수 있다. 보루키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빅리그에서 단 2경기 선발로 나서 1패 평균자책점 10.80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매체는 "손튼, 야마구치, 보루키 중 선발진에 들지 못하는 선수 중 한 명은 롱릴리프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즌 부진했던 보루키는 개막전을 마이너리그에서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LPGA, '신종 코로나' 여파 3월 중국 대회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으로 인해 오는 3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대회가 취소됐다.

미국 골프위크는 30일(한국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3월 5일부터 8일까지 중국 하이나에서 열릴 예정이던 블루베이 LPGA 대회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대회 취소 소식과 관련해 LPGA는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블루베이 LPGA는 2018년까지 가을에 진행됐다. 2019년을 건너 뛴 뒤 올해부터는 봄으로 개최 시기가 옮겨졌다.

한편 LPGA는 2월부터 호주에서 2개 대회, 태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각각 1개 대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청 동기' 안치홍 · 전준우 · 신본기 "롯데 내야를 부탁해'…시너지 효과 기대

FA를 통해 '거인 군단'에 합류한 안치홍(30·롯데)이 '경찰청 동기' 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개 구단 중 최다 실책(114개)의 불명예를 얻었던 롯데 내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는 이들 어깨에 달려있다.

안치홍은 지난 28일 부산에서 열린 입단식에서 빠른 적응을 자신했다. 그 중심에는 2015~2016년 함께 경찰청에서 복무했던 전준우(34), 신본기(31)가 있다.

안치홍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2+2년' 최대 56억원에 FA계약을 했고, 전준우도 4년 총액 34억원에 FA 도장을 찍었다. 신본기의 경우 2022년에 FA 자격을 획득할 전망이다.

안치홍은 "군 복무를 마친 뒤 '꼭 한번 같이 하자'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현실이 돼 매우 좋다"고 미소 지었다.

지난 시즌 최하위에 머물렀던 롯데는 특히 경기마다 실책을 쏟아내며 고개를 숙였다.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14개의 실책을 기록했다.

2루수 안치홍의 합류로 센터라인을 보강한 롯데는 더 나아가 기존 외야수였던 전준우를 1루수로 포지션 변경시키며 내야 안정화를 노린다. 여기에 새로 합류할 딕슨 마차도와 신본기가 뒤를 받친다면 내야 수비도 충분히 경쟁력이 생길 전망이다.

전준우(오른쪽)와 신본기.

지난해 KIA 타이거즈에서 2루수로 불안감을 안겼던 안치홍은 새 팀 합류를 앞두고 체중을 감량하며 몸 관리에 집중했다. 안치홍은 2019시즌 2루 수비에서 아쉬움을 보이며 1루수로 출전하는 시간이 많았다.

KIA 시절 2루수로 3차례(2011, 2017, 2018) 골든 글러브를 받았던 안치홍은 이제 롯데 유니폼을 입고 예전의 좋았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심기일전하고 있다.